



“잘하겠습니다” 4·13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당 광주지역 당선인들과 지지자들이 1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대 총선 각당 의석 수



178석 巨野 탄생 더민주 원내 1당

20대 총선,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제2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13석, 정의당이 4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경우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소속을 제외한 야(野) 3당만 합치더라도 무려 167석에 달하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연됐다.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민주에 내주며 국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 더민주의 경우 수도권 압승과 함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영남에서만 9석을 차지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선전하는 등 지지기반을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당은 호남 석권을 통한 '야권 적통' 계승과 정당 지지도 급상승 등을 통해 38석을 확보함으로써 3당 구도의 국회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다만 권역별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게 한계로 지적됐다.

한편, 중앙선관위 잠정 집계 결과 이번 총선 투표율은 58.0%로, 19대 총선 당시의 54.2%보다 3.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野 협력·경쟁... ‘정권 창출의 길’ 열어라”

더민주, 패권주의 버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된 모습을 국민의당, 호남정치 복원 통한 정치적 비전과 능력 보여야

4·13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실현되면서 야권의 정권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123석으로 원내 1당으로 올라서고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 20년 만에 제3당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5면>
당장, 호남 민심은 두 야당에 협력과 경쟁을 통한 정권 창출의 길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형 격인 더민주에게는 과거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유능한 수권정당의 모습과, 호남에 대한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을 보내고 있다. 더민주가 호남에서 3석 밖에 못 얻고 참패한 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할 수 없다는 민심의 경고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얼어붙은 호남 민심을 녹이기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도부 내의 호남 창구 마련 등은 물론 '삼성 미래차 사업 광주 이전' 등의 공약도 충실하게 쟁겨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 승리의 단맛에 취해 과거의 모습을 재연했다가는 야권의 핵심인 호남의 지지 철회가 굳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호남 민심의 지지 철회는 야당으로서의 무기력과 당내 패권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의 지지로 제3당의 입지를 구축한 국민의당은 우선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고 증명해야 한다.

특히, 호남 지역 당선자들은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한 정치적 비전 제시가 숙제다. 또 사회, 문화, 경제, 복지 등 보수 정권 8년 동안 정체되거나 뒤져졌던 호남의 현안 해결에도 팔소매를 걷어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 지역 당선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더민주에서 호남지역 의원들 간의 불신과 불통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크게 약화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 차기 대선이나 당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개인적 행보에 나선다면 강력한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일부 대선 의원들의 경우, 물

같이 여론이 높았지만 호남 민심이 전략적 지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과 대화, 때로는 압박 등을 통해 캐스팅 보트의 효과를 극대화, 호남 차별의 벽을 허물고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가 우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국민의당은 정권 창출의 비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한 정치적 비전과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의 변심?

4·13 총선 막판 광주 등 호남을 두 차례나 방문, '호남 민심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선 불출마 등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공언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화법으로 이를 비켜가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의 호남 참패와 관련한 정치 은퇴 문제에 대해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호남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때 드린 말씀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총선 전 “호남이 지지 거두면 정계은퇴·대선 불출마 하겠다”
총선 후 “호남 패배 가슴아파...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리겠다”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남의 패배는 아주 아프다. 우리 당이 더 노력하도록 화초리도 함께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겸허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부분들은 다 당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호남 참패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원내 1당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당장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대선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 막판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의 지지를 전제로 대선 불출마 등 정치 은퇴를 연계한 발언이 진정성이 담긴 결단이라고 보다 단순한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의 지지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대선 불출마 등을 언급, 논란을 사고 있다

는 것이다. 이 정도의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어떻게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 정권 창출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측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영남과 수도권 선거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큰 성과도 거둔데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정치권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방식보다는 호남 민심에 뚜렷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인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